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[미국 경제]

- Market Screener: 7월 미 내구재 주문, 2020년 이래로 가장 크게 하락
- Bloomberg: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주 만에 최저치
- CNN Business: 미국 소비자들 '여행과 엔터테인먼트에 더 지출'
- Bloomberg: 잭슨홀 미팅에 전 세계 은행 총재들 모인다

#### [주택]

- WSJ: 주택 모기지율이 얼마나 높을까?

#### [취업]

- Bloomberg: 미 청년들, "기술이 더 좋은 일자리 보장"

#### [한국 경제]

- Bloomberg: 한국은행, 경제 리스크 큰 상황에서 금리 유지
- TechCrunch: 한국 인터넷 강자 네이버,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원격 근무자와 회사 간의 유대감 줄었다
- WSJ: Target 소규모 창고 사용해 배송 시간 줄인다
- Bloomberg: Walmart, Alphabet "최대 6마일 거리의 드론 배송한다"
- CNN Business: Subway, Roark Capital에 매각

#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#### [미국 경제]

### Market Screener: U.S. July Durable Goods Orders Drop at Steepest Rate Since 2020

#### 7월 미 내구재 주문, 2020년 이래로 가장 크게 하락

- 올해 7월 내구재 주문 건수가 예상외로 지난 3년여만에 가장 크게 하락해 제조 부문 제품의 수요가 크게 약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.
- 7월의 경우 전월 보다 5.2% 감소해 계절조정치로 총 규모가 2천8백5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.
- 6월에 수정 조정치로 4.4% 증가를 포함해 4개월 연속 상승세 였던 주문 건수가 크게 꺾인 것이다.
- 국방 부문 자재를 제외한 새로운 주문은 5.4% 줄었으며 교통 장비가 14% 이상 감소했다.

Market Screener 기사

### Bloomberg: US Jobless Claims Drop to 230,000, Lowest in Three Weeks

##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주 만에 최저치

-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. 구직 수요가 여전히 건재한 것.
-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셋째주에 신규 청구 건수는 1만 건 감소한 23만 건. 조정되지 않은 기준으로는 약 19만 8천 건 감소하여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.
- 지속적인 전체 청구 혜택 건수는 8월 12일 기준 170만 건으로, 감소했다.
- 이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 고용주들은 여전히 고용하고 있으며, 해고도 줄이고 있다.
- 한편 하와이에서는 팬데믹과 산불 발생 이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.

Bloomberg 기사

## CNN Business: Americans are shopping less. But the US economic engine is still humming

### 미국 소비자들 '여행과 엔터테인먼트에 더 지출'

- Macy's는 신용카드 연체가 증가했고, Dick's 스포츠용품은 도난으로 마진이 줄었다. Foot Locker 주가는 30%, Nik 주가는 10일 연속 하락하여 최저치를 기록했다. 이외에도 타겟, 홈디포, 로우즈 모두 매출 부진을 겪었다.
- 미국인들은 콘서트나 영화 티켓, 항공료와 호텔 예약, 결혼식 및 스파 등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했던 활동에 지출을 하고 있다. 미국인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미국 국내총생산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.
- Deutsche뱅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상품 지출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, 쇼핑물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. 하지만 소비자들이 지출 방식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는 것.
- “소비자들은 눈에 띄게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”며 “상품보다는 여행과 엔터테인먼트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”고 시장 평가자이자 투자 회사 회사 Navellier의 설립자 Louis Navellier가 말했다.

CNN Business 기사

## Bloomberg: Central Bankers Gather for Jackson Hole Conference

### 잭슨홀 미팅에 전 세계 은행 총재들 모인다

-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 연례총회가 열리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 모이고 있다. 금요일 제롬 파월 의장이 개회 연설을 하게 된다.

- 투자자들은 연준이 7월에 22년만에 금리를 최고치인 5.25%~5.5%로 인상한후에 향후 전망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.
- 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금요일 연설할 예정인데 7월 금리 인상후에 향후 데이터에 따라 금리 정책이 결정된다고 한 상황에서 이번 미팅을 통해 9월 결정의 단서가 보일지 주목된다.
- 한편 세인트루이스 전 연방은행 James Bullard 총재는 “올 여름 미 경제 상승세가 연준의 올해 연준의 금리 마무리 정책을 반복시킬 수 있다”고 말했다. 금리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는 발언이다.

Bloomberg 기사

### [주택]

#### WSJ: How High a Rate Can Housing Take?

##### 주택 모기지율이 얼마나 높을까?

- 높은 모기지율이 주택 건설 부문에 악재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미국 경제의 밝은 전망에 필요하다는 것이다.
- 어제 연방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7월에 신규 주택이 71만4천채 판매되어 작년 6월의 68만4천채, 7월의 54만3천채보다 증가한 수치. 반면에 기존 주택은 7월들어 5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였다.
- 신규 주택 판매 반등 이유는 현재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적용받고 모기지율이 낮아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기 힘들기 때문이다. 기존 주택의 공급이 압박을 받고 있다.
- 기존 주택의 공급이 적다는 것은 기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.

WSJ 기사

### [취업]

#### Bloomberg: Most US College Grads Say Trade Skills Bring Better Job Security

##### 미 청년들, “기술이 더 좋은 일자리 보장”

- 고객 연결 서비스 사이트인 Thumbtack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중 9명은 숙련된 기술을 배우는 것이 대학 진학 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은 길이 될수 있다고 답했다.
- 1천명의 청년 대상 설문에서 거의 절반의 응답자는 대학 진학만큼 많은 부채를 지지 않아도 되는 저렴하고 짧은 교육으로 숙련된 기술 부문에서 경력을 쌓은데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.

- 최근 수년동안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이 더 많이 상승했다.

Bloomberg 기사

### [한국 경제]

#### **Bloomberg: Bank of Korea to Hold Rate as Risks to Economy Grow** 한국은행, 경제 리스크 큰 상황에서 금리 유지

-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가계 부채을 억제하면서 경제 성장 전망 위험 증가를 검토하는 가운데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.
-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18명의 분석가 모두 한국은행이 5번째 연속 회의에서 금리를 3.5%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긴축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에 올해 1월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했었다.

Bloomberg 기사

#### **TechCrunch: Korea's internet giant Naver unveils generative AI services** 한국 인터넷 강자 네이버,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

- 회사가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인HyperCLOVA X를 출시했다.
- 이에 따라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챗 GPT와 비슷한 인공지능 챗봇인 CLOVA X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BING 에 해당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검색 엔진 Cue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CLOVA X는 8월 24일 부터 영어와 한국어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11월에는 네이버 검색 엔진에 통합된다고 밝혔다.

TechCrunch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#### **WSJ: The Growing Disconnect Between Remote Workers and Their Companies** 원격 근무자와 회사 간의 유대감 줄었다

- 원격 근무자와 회사 간의 유대감이 감소했다.
-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조직과 유대감이 느껴진다고 응답한 원격 근무자의 비율은 28%이다. 이는 작년 32%에서 하락한 수치로, 팬데믹 이후 가장 낮

은 수준이다. 이는 올 봄과 여름에 원격으로 근무한 미국 근로자 약 9천 명을 대상 실시했다.

- 반면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 3분의 1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유대감을 느낀다고 답했다. 하이브리드 근무자의 경우 35%가 회사의 사명 때문에 본인 업무에 책임을 느낀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
- 이번 조사 결과는 원격 근무가 직원 충성도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여준다. 많은 근로자는 원격 근무를 통해 필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한다. 따라서 이런 연결감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는 것이다.

WSJ 기사

### WSJ: Target Goes Local to Speed Up Order Deliveries Target 소규모 창고 사용해 배송 시간 줄이다

- 타겟이 소규모 창고들을 사용하여 공급망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.
- 타겟은 지난 5년 동안 지역 소규모 창고를 추가한 것이 재고를 줄이고 온라인 주문을 더 빠르게 배송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.
- “소규모 창고를 사용해 주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네트워크가 복잡해지지만, 배송 거리가 더 짧아지고 유연성이 높아진다”고 물류 전문가이자 공급망 소프트웨어 회사인 ToolsGroup의 최고 경영자 Inna Kuznetsova가 말했다.
- 그는 이 전략을 통해 소매업체는 상품 이동 거리를 줄여 배송 속도를 높일 수 있고, 대량의 주문을 처리하는 데 효율적인 창고를 사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.
- 타겟은 공급망 변화 덕분에 7월 넷째주 기준 재고율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, 대차 대조표에 재고가 전년 대비 17% 감소했다고 보고했다.

WSJ 기사

### Bloomberg: Walmart, Alphabet to Test Drone Deliveries of Up to Six Miles Walmart, Alphabet “최대 6마일 거리의 드론 배송한다”

- 월마트는 알파벳의 Wing 유닛과 협력해 Dallas 지역 매장 2곳에서 역대 가장 드론 배송을 계획하고 있다.
- Wing 드론은 매장에서 최대 6마일 떨어진 곳까지 식품과 생활 필수품을 배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월마트 관계자가 말했다. Wing(Wing)은 미연방항공청 (FAA)로부터 승인을 받았다.
- 알파벳 사업부의 최고 재무 책임자 Shannon Nash는 “운영자는 원격 위치에서 시스템을 감독할 수 있어 조종사가 매장이나 고객 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”며 “항공기는 스스로 비행하므로 동시에 여러 대의 드론을 안전하게 감독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- 인구가 약 22만 명에 달하는 텍사스주 Frisco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에서 몇 주 내로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다. 연말까지 이 지역 두 번째 매장에도 드론 배송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.

Bloomberg 기사

### CNN Business: Subway has sold itself to a private equity firm Subway, Roark Capital에 매각

- 서브웨이가 사모펀드 회사인 Roark Capital에 매각 되었다.
- 로아크는 Arby's, Auntie Anne's, Buffalo Wild Wings, Carvel, Sonic 등 다수의 대형 레스토랑 체인에 투자한 바 있다.
- “이번 거래는 서브웨이의 성장 잠재력과 가치를 반영한 것”이라며 “서브웨이는 로아크와 함께 가맹점주, 고객, 직원 모두에게 좋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고 서브웨이 CEO John Chidsey가 말했다.
- 로아크의 이번 거래 금액은 약 96억 달러, 패스트푸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 중 하나이다. 로아크는 서브웨이의 경쟁사인 Jimmy John's의 Inspire도 소유하고 있다.

CNN Business 기사

### [보고서]

####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#### 고금리에 미국 주택구매자 모기지 수요 28년 만에 최저

#### 기존주택 매물 부족에 신규주택 판매는 17달 만에 최고

지난주 미국 모기지(주택담보대출)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, 주택구매자들의 모기지 수요는 2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.

23일(현지시간) 미 CNBC와 폭스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모기지은행협회(MBA)는 계절조정 지수 기준으로 지난주 모기지 신청이 전주 대비 4.2% 하락, 1995년 4월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발표했다.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%나 줄어든 것이다.

이는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금리 인기 대출상품의 약정금리(평균)가 전주 7.16%에서 7.31%로 올라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은 여파 등으로 평가된다.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금리는 5.65% 정도였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